

■ 서문

과연 저자는 죽었는가?

김 철 수

20세기에 들어 신비평과 구조주의 이후 수많은 이론들은 문학작품을 저자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독립적인 ‘텍스트’로서의 위상을 확립시켜 주었다. 예컨대 ‘작품’의 창조자요 책임자 및 권위자로서의 ‘저자’의 죽음을 ‘텍스트’를 읽으며 의미를 창조하는 ‘독자’의 탄생으로 치환한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나 “누가 말하든지 무슨 상관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주체로서의 저자가 아닌 ‘하나의 기능으로서의 저자’의 개념을 유행시켰던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등의 다수 이론가들에 의해 저자의 개념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율리시스』 속에 너무나 많은 수수께끼와 퀴즈들을 감춰두었기에 앞으로 수세기 동안 대학 교수들이 내가 뜻하는 바를 거론하기에 분주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조이스에게도 과연 그러한 시대적 전복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방대한 지적 자산과 타고난 성격, 그리고 제국주의에 대한 분노와 과도한 민족주의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소위 “세계주의자”(cosmopolitan)로 명명되고 있는 조이스의 경우는 오히려 바흐찐(Mikhail Bakhtin)의 표현대로 “상위질서 속의 통합성”(a unity in a higher order)을 도모하며 그를 통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마저 열어두는 건축가(architect)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5월 18일에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Joyce and Technological Culture”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던 제 8차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미국, 중국, 대만,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모두 5개국에서 온 조이스 학자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열띤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올 겨울에 발행될 국제판(International Issue)에서 상세히 다루어질 예정

이다. 거기에는 조이스의 작품 속에 드러난 20세기 초 아일랜드와 영국 및 유럽의 근대적 기술문화 뿐 아니라, 작품의 저자이자 작가이면서, 텍스트의 건축가나 기록자로서의 그의 기교와 기법들(techniques)도 망라될 예정이다.

흥미롭게도, 예년과 다름없이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가 한국버지니아울프학회와 더불어 올해 6월 30일자로 발행하게 된 학술지 『제임스조이스저널』 제25권 1호의 대부분의 논문들 역시 단순히 독자에게 그 해석의 권위를 넘겨 준 필경사나 기능으로서의 역할만 남은 저자가 아닌 자신의 의도를 직·간접적으로, 또는 확실하거나 모호하게 작품 속에 배태시키고 ‘섭리’하는 창조자 혹은 건축자로서의 작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았다.

먼저 길혜령은 “Colonial Ireland and Socialist China: A Comparative Study between James Joyce and Mo Yan”라는 제목의 영문 논문에서, 각각 영국제국주의와 중국 공산당이라는 사회적, 정치적 억압 속에서 유사한 기법과 문체로 자신들의 삶을 작품 속에 투영해 온 조이스와 중국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현대소설가 모옌의 작품 비교를 통해, 저항과 인정이라는 양면적인 태도로 자신들의 복잡한 현실을 수용하는 주인공들의 양상의 기저에 존재하는 저자들의 스타일을 읽어내고 있다. 김소연은 “여성비평으로 다시 읽는 조이스의 『에블린』과 『진흙』”이라는 논문을 통해 『더블린 사람들』의 두 단편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을 여성주의 입장에서 재조명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작가 조이스의 여성관에 대한 새로운 복합적인 해석을 시도하면서 저자의 의도의 선명성을 꼼꼼하게 천착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안명덕은 “셰이머스 딘의 『어둠 속 읽기』에 감춰진 문학의 정치”라는 논문을 통해 조이스가 아닌 북아일랜드 출신의 시인이자 문학평론가, 그리고 가톨릭 신자인 딘의 작품 속에 함의된 작가의 정치적 의도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저자의 역할에 대한 재고의 가능성을 부활시키고 있다. 전신화는 “Writing for a ‘New Plot’ in Virginia Woolf’s *Between the Acts*”라는 영문 논문에서 임박한 제2차 세계대전의 위협 아래에서 『막간』이라는 작품을 쓰던 버지니아 울프가 지극히 개인적인 등장인물들의 삶과 의식을 통해 국가적 폭력이라는 거대담론에 반응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음에 착안하여, 그러한 거대담론에서 제외된 개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다른 노래와 다른 결론”을 가진 “새로운 플롯”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저자인 울프 자신의 의식을 추적한다.

조성란의 논문 “호가스 출판사와 공적 지식인으로서의 버지니아 울프”는 작가로서의 경력 외에 출판인이라는 공적 지식인으로서의 울프가 그의 저작과 출판 활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글쓰기와 글읽기를 통한 문화 민주주의의 실현과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를 허무는 다층적이고 다성적인 사상가이자 비판적 교육자였음을 역설함으로써 혼란의 시대를 살아간 작가의 사회적 역할을 재고한다.

최석무는 그의 논문 “호머와의 대응관계 넘어서기: ‘텔레마코스’에 나타난 다원적 관점”에서 신화적 대응관계를 중심으로 비평되어 온 조이스의 작품 속의 인물의 양상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단선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지하고, 조이스 자신이 그의 이야기를 호머의 신화에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이 가능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창조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역시 작품을 둘러싼 저자의 의도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애초 총 여덟 편의 논문 중에서 최종 선정된 여섯 편의 논문들이 공교롭게도 모두 다 작품 속에 드러난 저자의 의도를 다룬 내용들이었는데, 이러한 연구의 결과물들은 향후 저자와 작품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접근과 수용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단초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월이면 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는 매년 2회에 걸친 학술대회와 격년 마다 실시되는 국제학술대회, 그리고 매월 셋째 주 토요일(방학 중에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조이스 작품 독회(현재는 *Ulysses*를 재독하고 있음)를 통해 회원 간의 연구 정보 교류와 그 지평 확대 및 연구능력 제고를 모색해 오고 있으며, 매 홀수 해 봄에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최소한 5개국 이상의 학자들과 교류함으로써 세계적인 학회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갈 예정이다. 함께 학술지를 발간하는 동반학회인 한국 버지니아울프학회와 더불어 비록 점점 암울해져 가는 연구의 환경이나마 최선을 다해 지켜감으로써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는 국내외적으로 영향력 있는 단일작가 연구 학회로서의 위상 제고와 책무 수행에 힘쓸 것이다.

(조선대)